



사설

다시 생각하는 3.1 운동

1910년 이후 한국은 일본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통치하에 놓여 있었는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한민족의 항일독립투쟁은 각지에 의병(義兵)을 낳고 널리 민족계몽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일본은 이와 같은 민족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하여 항일독립운동 투사들을 학살·투옥하고, 일체의 결사(結社)와 언론활동을 금지하였다.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우민정책을 실시하여 민족의식의 성장을 억누르고,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폭압(暴壓)은 지식인·학생·종교인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의 반일감정(反日感情)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이 일본의 무단정치를 겪고 있을 무렵,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19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은 14개조로 된 전후(戰後) 처리원칙을 파리 강화회의(講和會議)에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제창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피압박민족에 대한 자극제가 되었다. 이 민족자결주의의 새로운 원칙은 항일투쟁을 계속해오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의 태화관은 긴장과 신념과 의지가 함께 교차하는 가운데 민족대표 33명 중 29명이 예약한 방에 모였다. 오후 3시 순병회의의 제의로 한운운이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간략한 인사에 이어 그의 선장으로 만세 3장을 고향 하였으며, 불과 15분만에 전격적으로 낭독식을 끝내고 통고한 대로 경찰이 오자 스스로 체포되어 갔다. 파고다공원 후문으로 나선 학생과 민중들은 창덕궁·안국동·광화문 앞에서 서대문을 경유, 프랑스로 향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 한 뒤 다시 이화학당·정동·미국영사관·대한문 앞으로 해서 충무로를 거쳐 동대문 방향으로 가서 그 문 위에서 독립만세를 절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파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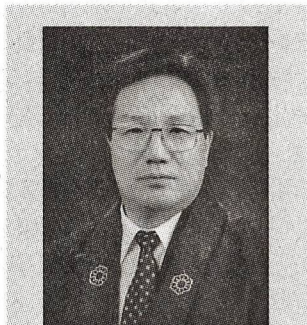
3·1운동 이후 3개월 간의 전국 독립만세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집회 횟수는 1,542회, 참가인원수 202만 3089명, 사망자수 7,509명, 부상자 1만 5961명, 체포된 인원수 4만 694명이며 소각당한 교회당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다. 이때 서울의 10개교에서 여학생이 참가한 인원은 1,929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이 운동이 어떤 지도력에 의하여 인도되었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계층별·남녀별·지역별·학력별·연령별 할 것 없이 전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시민주의적 의식정장의 면에서 3·1운동은 곧 시민국가 성립운동의 성격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들 우리는 3.1운동이라 칭하며 삼일절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 학생, 직장인 등은 그 날 하루는 업무를 놓고 쉰다. 삼일절의 의의나 역사적인 위치 등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사시험 때뿐만 아니라 기억할 뿐 학교를 졸업하면 오로지 공휴일로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관공서나 기관에서는 삼일절 관련 현수막 몇 개 붙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임무는 다한 것처럼 하고 방송언론은 삼일절 특집으로 독립군들의 활약상이 나오는, 대사 조차도 신과 같은 오래 묵은 영화 몇 편 방송으로 넘어가고 일간지에는 삼일절 행사에 높은 분이 참석했다는 짧막한 보도기사 한 줄로서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아무리 역사는 과거이며 과거는 잊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들 중에서 과거의 유물이나 혹은 문화재 그리고 자연환경, 경제적인 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삼일절 같은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이나 의미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아픔과 절망 그리고 그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 주고 물려주고자 한 생각과 사교 그 뜻을 받아 다시 우리들의 후손에게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 또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물려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닐까.

교구 소식 및 동경

총지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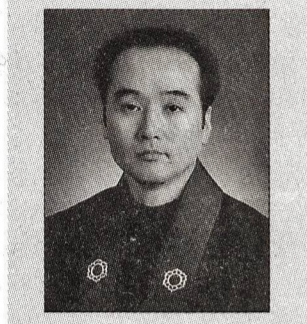
지난 2월 15일 새로이 임명된 신임 각 부서장에게 향후 계획과 포부를 들어본다. 총기 30년! 헤엄총리원장과 함께 제2창종의 정신으로 종단을 이끌 신임 부서장들의 마스터플랜은... (재무부장 지성정사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지 못했습니다)



민인사주교 원승 총무부장  
총기 19년 덕화사 주교  
총기 22년 중앙총회의의원  
총기 25년 민인사 주교 및  
총리원 재무부장  
총기 29년 제단 이사  
총기 30년 총무부장 임명

▶총무행정 주무부서로 계획은?  
우선 총무행정과 업무방향을 원칙과 객관성에 근거한 종단을 이끌 생각입니다. 이는 승단의화합 종단의 화합을 최우선하여 위로는 종령님과 원로스승님의 뜻에 수승하고 밑으로는 후배님들의 건강한 생각과 뜻을 모아 한마음 한뜻을 가진 종단을 생각입니다. 물론 혼자 힘으로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여러 스승과 교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다면 가능하다 봅니다. 원칙과 객관성에는 질서와 예의 등 도덕적인 규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규집 내용이 현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관장부서로서 계획은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법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종정님 당시 법을 제정 하였으므로 현대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정의 문제는 혼자만의 뜻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총무부에서 안을 만들지만은 원의회, 중앙총회, 승단총회 의결수령이 있어야 합니다. 시급히 필요한 부분은 부분대로, 좀 시일이 걸려도 무방한 제도는 많은 시간을 통해 위로는 종령님을 위시한 원로스승님들의 뜻과 여러 스승님 및 종단전체의 뜻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총지사주교 범동 교정부장  
총기 25년 정각사 근무  
총기 29년 총지사 주교  
총기 30년 총리원 교정부장

▶교정부의 계획은?  
법규집을 보면 교정부에서 할 일이 많은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부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초발심의 자세로 방일하고 안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교정부가 무슨 무슨 일을 한다고 약속하기 보다는 교정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작업과 초석을 다지는 사업이 중심이 될것입니다. 처처교화 시시포교의 슬로건을 가지고 교리연구 교화 활성화 방안연구 사비 포교와 군포교등 다양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장 스승과 부서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어서 전부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유명무실한 교정부의 위상을 유명유실한 부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원로스승님들이 퇴임을 하였지만 스승님들의 풍부한 교화의 경험과 방법을 오늘날 어떻게 계승할까 고민을 하고 있으며, 불교총지종의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대중들과 스승에게 회향할까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법장원외 교정부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절 방안은?  
총리원 교정부는 법장원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우선 가져야 합니다. 교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였으면 교정부의 일을 법장원에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물론 법장원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충분히 업무 분장이 될것입니다. 법장원은 밀교와 불교의 역경사업과 법요의식의 연구등 고유업무를 불수 있도록 교정부가 도와야 합니다.



덕화사주교 대원 사회부장  
총기 22년 정각사 근무  
총기 25년 덕화사 근무  
총기 26년 덕화사 주교  
총기 30년 총리원 사회부장

▶종단의 대 사회적 홍보와 사업에 대한 계획은?  
지난 2월15일 갑작스럽게 사회부장에 임명이 되어 아직까지 얼떨떨합니다. 또 업무를 받자마자 49일 불공에 들어가 업무과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부는 대사회적 활동을 통한 종단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임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불교 교유의 사상을 접목하여 중생의 고통에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국제적 불교의 연대들을 만들지는 못하고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한 교류와 연대 사업을 할것이며 더 나아가 종단의 독자적인 틀을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다져볼 생각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및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등 여러 불교계 협의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불교발전에 본 종단이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문화속에 독특한 밀교적 요소를 개발하여 대중과 친근한 종단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퇴임스승에게 듣는다



창종 30년 제 2의 도약을 위해서 교회의 방법이 시대에 맞는 방법과 시대에 맞는 내용을 개발하는 스승님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본원생활 15년 동안 5대, 8대 총리원장과 법장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수행과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던 효강 정사님의 퇴임 일성이다.

-아직 건강하신데 좀더 종단을 위해 일을 해주셔야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된다. 후진을 양성하는 뜻에서 선배는 물러나고 자꾸 정력적이고 활동적인 후배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종단이 젊어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선배가 물러간 자리가 처음에는 허전하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알맞은 사람이 와서 허전하고 불편한 것을 메울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법이다.

-현재에 게실 때 종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는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요?  
날마다 좋은 날이었다. 진언과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획 지나가 버렸다. 과거에 종단은 내적발전에 중심이 돼 밖으로 종단이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승님들의 노력이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이 일체되어 한국불교종단에서 불교총지종이 5대 종단으로 우뚝섰다

또한 청소년 포교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실천, 소비자보호운동,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도제 양성을 위해 법장원을 활성화하여 밀교개론서와 만다라 도정원고, 종보발간, 불교총전, 종조법설집 개편 등등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도 총지종단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나 불교계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남는다.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찌 사람이 살아가며 일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없겠나. 아쉬움이 없으면 부처계?  
법장원에서 추진중인 일들이 많다. 그 일들을 완성하지 못한 점들이 아쉽다. 또한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각자의 남아 있는 일들이 있어 그 일을 마치다 보니 늦어진 것 같다.

앞으로 하나같이 똘똘 뭉쳐서 중심적으로 일을 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승단 내부에는 내적인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 외적인 일을 해야 한다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모두 종단의 발전을 위한 애정의 표현이라 생각하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종단이 변화의 속도에 처지면 그만큼 세상과 멀어진다는 생각을 스승과 교도들은 가져야 한다.

-신임 총리원장과 후배에게 한말씀?  
신임 총리원장은 열의와 종단에 대한 발전상을 가지고 계신 특목한 분이다. 사원의 장엄문제, 건축양식, 법의개발, 의식과 의례와 교회의 내용을 현대화하고 개발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계시니 종단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도움을 줘야 한다. 그리고 도제양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주석하실 곳은?  
나의 조상이 계신 곳 밀양 일성사다. 또 나는 밀양 토박이고 밀양에 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일상사에서 중생교화도 하고 진언행자로서 수행을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제 12대 불교총지종 헤엄 종사 총리원장 임명 추

총기 30년! 제2의 창종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중생교화와 종단발전에 용맹정진 하겠습니다

- 총리원장 헤엄
- 총무부장 원승
- 재무부장 지성
- 사회부장 대원
- 교정부장 범동





# 2001년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주요사업 계획

본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강남구청에서 1999년 2월 건립·준공하고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가노인 복지시설로서 노인 주간보호사업,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사업, 재가복지사업 등의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의 2001년도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다.



신규사업

▶ 경로식당 무료급식· 무료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과 아울러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한다.

본 복지센터내 경로식당은 개관 이후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 일반노인은 1,000원씩 실비를 받고 운영하였으나, 2001년 3월부터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이용대상 노인들 모두에게 무료로 급식을 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에 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경로식당은 일일 평균 80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나, 무료급식 실시로 100여명 이상으로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밀반찬제공 서비스  
밀반찬 제공 서비스는 생활이 곤란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밀반찬을 직접 조리하기 곤란한 노인들에게 밀반찬을 제공함으로써 인해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본 복지센터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분의 노인들에게 주 1회 밀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30분의 노인들에게 주 2회 밀반찬을 제공하게 되었다.

### 계속사업

▶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晝間)보호센터는 중풍,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기능회복 서비스, 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급식·목욕·이미용 등의 위생서비스, 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송영서비스, 봄, 가을 나들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 2월 현재 정원 20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계시며, 가족같은 분위기와 직원들의 친절함으로 인해 이용을 원하는 대가자가 항상 10여분 이상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는 5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알선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1년 현재 매월 30여분의 구직자를 취업시키고 있으며,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 ▶ 재가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은 식사배달사업, 밀반찬 배달사업,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미용 서비스, 한방진료, 수족침서비스, 글씨교실 운영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 노인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 등신불

이현주

김동리의 단편 소설인 '등신불'은 1961년 11월에 발표된 그의 불교사상애로의 심화를 보여주는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종의 이야기를 동반하고 있으며, 현재와 과거가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일제 말기 화병으로 팔려간 '나'는 중국의 북경을 거쳐 남경에 주둔해 있다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탈출, 불교학자인 진기수에게 식지를 잘라 혈서를 써 구원을 청한다.

결국 그의 도움으로 정원사(淨願寺)라는 절에 머물게 된 '나'는 그곳에서 등신대(等身大)의 결과부좌상(結果趺坐像)인 금불상을 보고 경악과 충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또 하나의 이야기인 등신불에 대한 내력이 소개되는데 이 등신불은 옛날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마침내 성불한 만적이란 스님이 타다 굳어진 몸에 그대로 금불을 입힌

특유한 내력의 불상에 얽힌 이야기가 시작된다. 만적(속명은 기)은 어머니의 학대로 집을 나간 이복형 사신을 찾아 나와 중이 되었는데 어느 날 문둥이가 되어 있는 사신을 만나게 된 뒤 충격을 받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복 형제에게 고통을 가져오게 된 근원적인 죄라는 죄의식을 가져 소신공양을 하게 된다.

만적이 몸을 태우던 날 여러 가지 신이(神異)가 일어나 새전이 쏟아지게 되며, 이 새전으로 타다 남은 그의 몸에 금불을 입혀서 등신불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등신불은 거룩하고 원만한 여느 불상과는 달리 고개와 등이 굽을 뿐만 아니라 우는 듯,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오뇌와 비열이 서린 듯한 거부좌상으로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움켜잡는 듯한 감동과 함께 전율과 경악을 느끼게 한다.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원해대사는 혈서를 쓴 바른 손 식지를 들어보게 함으로써 주인공 '나'의 출가는 만적의 소신공양의 정신과 연결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주인공인 '나'는 전쟁이라는 인위적인 학살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물어뜯는 소극적이거나 최악의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희생적 행위와 만적의 어머니가 지닌 인간적 모성이 저지른 도덕적인 악을 대항하여 소신 공양이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의식을 통해서 불교 설화를 연관지음으로써 이 소설은 현실적인 의미를 더하게 된다.

한 인간의 승화된 고뇌와 비열을 형상화하여 승엄한 속죄에 내재한 인간적인 고통의 깊이를 종교적 소재로 다루었다는 점은 이 작품만이 지닌 특징이라 하겠다.

### 강연주의 부처님 이야기

## 절름발이 아저씨의 돌팔매

부처님이 보살로 계시 때 있었던 이야기에요. 그 나라 왕이 아끼는 대신 가운데 수다쟁이가 있었어요. 그 대신은 한 번 입을 벌리면 다들 졸을 몰랐어요. 대신은 왕한테도 잔소리를 늘어 놓았어요. 말을 많이 하다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많이 하게 되는 법이지요. 그래서 왕은 대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왕은 그 대신의 버릇을 고쳐 놓고 싶었어요. 한편, 그 나라에 돌팔매를 잘하는 절름발이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이 좀 한가하면 이렇게 즐겼습니다.

"아저씨, 저 나무 위에 달린 잎으로 코끼리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부탁하기도 하고 용돈을 쪼개서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절름발이 아저씨는 못이기는 척 돌팔매를 던져 나뭇잎을 맞추지요. 몇 번 돌팔매를 던지면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습니. 아저씨가 던지는 돌팔매를 보는 아이들은 넋을 놓고 그것을 보곤했지요. 아이들이 너도나도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남아나지 않았어요. 더러는 떨어지고 더러는 꽃 모양으로 말 모양으로 나무에 달려 있었지요. 그 날도 아저씨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이겨 큰 나무 아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느라 실새 없이 돌팔매를 던졌어요. 마침 그 걸을 왕이 지나다가 그것을 보았어요. 왕을 본 아이들은 놀라서 다 달아났는데 절름발이 아저씨만은 돌팔매질을 하느라 왕이 지나가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의 돌팔매질이 신기하거든요. "웁다. 저 사람에게 대신의 입을 막아달라고 부탁해야지." 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절름발이를 불렀어요. 절름발이는 나무를 망쳐놔서 왕이 부르는 줄 알고 짹짹머 왕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왕의 부탁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 일이라면 식은 죽 먹기였어요. "대왕님, 저한테 신앙의 풍을 좀 구해 주세요." 절름발이는 이렇게 말하고 대신이 왕을 만나러 오는 날을 기다렸어요. 왕을 만나러 온 대신은 왕 앞에 앉자마자 다시 잔소리를 늘어 놓았어요. 왕은 대신이 어떤 말을 해도 웃으며 들을 수 있었어요. 대신의 입 속으로 뭐가 속속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게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절름발이 아저씨가 대신의 입으로 던지는 돌팔매같은 신앙의 풍이었어요. 신앙의 풍이 언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지 대신은 알지 못했어요. 절름발이 아저씨는 대신이 침을 꿀떡꿀떡 삼킬 때 신앙의 풍을 던져 넣었거든요. 대신은 실새 없이 잔소리를 하다가 뱃속이 거북했어요. 그것을 본 왕이 말했어요. "이보게, 자네 뱃속에 신앙의 풍이 들어가는지도 몰랐지? 얼른 그 풍을 토해 내게." 왕의 말을 들은 대신은 부끄러워 달아나듯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군요. 왕은 수다쟁이에 잔소리꾼인 대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아주 편했다고 해요. 그리고 절름발이 아저씨는 큰 상을 받았지요. 할 말만 해야되는 데 그 대신은 그것을 몰랐나봐요. 신앙의 풍을 먹고서야 그걸 알았다니요.

# 동해중학교소식

중학생생활을 훌륭히 마치고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은 졸업생에게 인생의 긴 행로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



▶ 동해중학교 제31회 졸업불사 거행  
지난 2월 14일 재단이사장님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어머니회장 및 동창회장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31회 졸업불사를 거행하였다. 이번 졸업불사에서 이사장님께서 졸업생들의 영광을 축하하고, 정성으로 보살펴주신 학부모님과 학생지도에 애쓰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중학생생활을 훌륭히 마치고 한 단계 높은 곳으로 발을 들여놓은 졸업생에게 인생의 긴 행로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졸업식은 총 28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최우수 졸업생 이사장상에 3학년2반 이흥우 학생이,

우수 졸업생 학교장상은 3학년5반 하준근, 3학년7반 김운민, 3학년1반 이슬기이 수여하였다. 그 외 대내외상 37명이 수여하였다.

▶ 학교법인 대동학원이사회  
지난 2월 14일 동해중학교 이사회가 이사장수성, 이사 경관, 원봉, 해산, 학교장, 감사법성 참석하신 가운데 열렸다. 이번 이사회의 안건은 200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추경예산 심의와 2001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 기간제교사 임용에 관한 건이었다.

▶ 증축교사 준공  
총지중의 지원금 2억원으로 착공한 동해중학교 2층 특별실 증축공사가 1월 19일 준공되었다. 총 5개 교실 규모인데, 2개 교실을 교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춘계방학을 이용하여 교무실 이전 작업을 하였다. 2개 교실은 교원휴게실과 방송실, 학부모상담실 등으로 사용하고 1개교실은 다용도교실로 사용한다. 기존의 교무실은 가사실 겸 미술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교문 옆

의 수위실 겸 차고를 개조하여 체육부실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교무실에는 26명이 사용하고 정보부 6명은 정보실로, 과학과 4명은 과학실, 가정 및 기술과 3명은 가사실, 체육과4명은 체육부실로 각각 분산 수용하기로 하였다.

▶ 신학년도 종교교육 계획  
신학년도부터 제7차교육과정의 적용되면서 학교장 재량시간에 종교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는 시작 단계이고, 학생선발권이 없어 임의로 배정된 학생이기 때문에 종교시간을 많이 배정하기 어렵다. 우선 교과시간에 1학년 각 반 연간4시간씩 32시간을 실시하는데, 불교반 교사인 장재계선생님과 김춘삼선생님이 맡게되고, 교재는 각종 교재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학년까지, 후년에는 3학년까지 모두 종교교육을 하게된다. 앞으로 종교교육을 점차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는 정규시간에는 어렵더라도 특별한 시간에 심도있게 지도해줄 교법사가 필요하다.

# 교화 스승님을 모십니다.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과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통한 불법홍포와 중생교화에 뜻이 있는 분을 약간명 모시고자 합니다.

### 자격

1. 30세 이상 50세 이하 남녀 불문
2. 본 종단 교도로서 7년이상 수행자
3. 진리를 깨쳐서 실천하므로써 선행의 묘득을 체험하게 된 자
4. 본 종단의 규율을 이행한 자

뜻이 있는 분은 각 사원 스승과 불교총지중 통리원 총무부로 문의바랍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 총무부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전화 : 552-1080~3

총지문화계 소식



일엽스님이 보 내는 선문

개화기 최초의 여류 문인 이자 '한국 불교가 낳은 최고의 여성'으로 일컬어지는 김일엽 스님(1895~1971). 스님의 입적 30주기를 맞아 일엽 스님 출가 이후 쓴 글들이 '일엽선문' (一葉禪文·문화사)이란 이름으로 묶여 출간됐다.

'일생에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이요/영겁에 얻기 어려운 이 몸이라/태어난 한 길 거쳐 이 산에 이르니/오늘은야 문득 옛 근심 잊노라' ('일생에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전문)

일엽 스님이 생전에 주석했던 예산 수덕사 환화대를 중심으로 한 '김일엽 스님 문도회'에서 펴낸 문집에는 스님의 수행과 구도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채워져 있다. 시문, 유고, 법문, 법어록 등 스님의 작품과 함께 민공·동산·청담·운하 등 한국 현대불교사를 수놓은 고승들로부터 받은 서한, 입

적 후의 추모록 등을 덧붙여 스님의 수행생활뿐 아니라 당대 선승들과 정신적 교류관계까지 알 수 있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 신학문을 배우고 도쿄 유학까지 다녀온 일엽 스님은 자유연애론과 신정조론을 주장하며 일제 하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32세 되던 1928년 돌연 입산, 경허-만공으로 이어지는 덕숭 법맥에 몸을 담아 다시 한번 세인을 놀라게 했다. 60년대 펴낸 '청춘을 불사르고'는 그의 굴곡진 삶의 역정을 담은 수상록으로 서점가를 흥미하기도 했다.

일엽 스님의 손상자로 문집 편찬을 주도한 월송스님은 "세속적인 명성에 가려졌던 선승의 모습이나 구도자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이 책을 평가했다.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신라밀교

저자 : 비로영우 출판사 : 함남출판사  
이 책은 비밀스럽게 수행하고 전수되어 온 부처님의 특별한 가르침인 밀교를



삼국유사와 고려 대장경 밀교부에서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한 책이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밀교의 이야기와 티벳 밀교의 상징 나로빠의 수행기, 금강유가정경의 수행지침서, 금강계대만다라속 존상들의 수인, 다라니 삼매법 등이 상세히 적혀있으며, 수행중에 나타나는 마장의 원인도 경전을 통해 밝혀놓았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 신라밀교의 자취 제2장 수행의 입문과정, 제3장 대비로 지나성불신변가지경의 입진언문 주심품과 제4장 지법수행에 해당하는 금강정일체여래진실십대승현중대교왕경의 일부, 제5장 연화부심염송의례, 제6장 지법수행의 정수인 금강계대만다라수행의 자세한 인법과 관상법, 다라니 수집법, 수행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문소리의 영화세상

좋은 영화이기 이전 독특한 영화, 영화는 검은 스크린에 3분 넘게 음악과 암전으로 시작된다. 이처럼 의표를 찌르는 영화적 '전술'이 영상혁명가 라스 폰 트리에답다. 덴마크 출신인 트리에에는 '유로파' (91년) '브레이킹 더 웨이브' (96년) 등을 통해 새로운 영화 형식과 독특한 영상언어를 보여준 감독이며 우리에게 김김으로 더 잘알려져 있는 영상혁명가로 불린다.



어둠속의 댄서

주연인 보크 역시 색시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전세계에 매니아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팝 가수. 열 한 살에 첫 음반을 낸 후 14집까지 선보였고 아이슬란드 대통령으로부터 귀족 칭호인 '레이디'를 선사 받은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댄서'에서 신들린 연기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천재성이 농후한 감독과 주연 배우는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이야기를 상상 속에서 펼치는 화려한 춤과 노래, 인상적인 영상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한 편의 음악 영화를 만들어 냈다.

〈어둠속의 댄서〉는 몇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 않은 내러티브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에 이민 온 체코 여성 셀마는 유전적인 병으로 시력을 잃어간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아들 또한 시력을 잃을 것을 막기 위해 쉬지 않고 공장일에 몰두한다. 그녀가 갖고 있는 삶의 기쁨은 이미 추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할뿐이다. 우연히 그녀의 돈에 대해 알게 된 옆집 경찰관 빌은 그녀의 돈을 훔친다. 그 돈을 찾기 위해 빌을 찾았던 셀마는 그를 죽이게 되고 그녀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결국 셀마는 유죄를 선고받고, 그 돈이 자신의 변호 비용에 쓰이는 것을 거부한 채 죽음을 선택한다.

여전히 전체적인 톤은 거칠고, 어둡고 축축한, 그리고 슬픈 라스 폰 트리에 그 자신의 전통에 있어서 비껴나 있지 않다. 그 사이 사이에 뮤지컬, '장면'이 삽입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즉 조금 다른 이유로 놀라운 것은 〈어둠속의 댄서〉가 뮤지컬의 컨벤셔널 형식들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뮤지컬이 지닌 전통적인 요건인 판타지로서의 기능에는 한치의 벗어남 없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이다. 오히려 라스 폰 트리에의 뮤지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형식적 실험이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더욱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그는 이 판타지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 그것을 '치유성'의 의미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 영화에서 춤과 노래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지만 시력을 잃어가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셀마를 위해 라스 폰 트리에가 마련한 치유적인 판타지의 시공간이다.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 춤과 노래가 들어가는 시기는 그녀의 절망적인 현실 상황들 사이에 삽입되며, 그것을 통해 셀마는 희망적인 다른 상황을 잡시나 꿈꾼다.

그러나 〈어둠속의 댄서〉에서 희망은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 명제, 즉 피할 수 없는 '절망'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다. 라스 폰 트리에에게 절망은 판도라의 상자 안에서 희망보다 더 밀박에 있는 삶의 진리이고, 시력을 잃은 셀마에게 빛의 존재와도 같은 춤과 노래는 그녀의 눈을 가리는 '어둠'이 있어만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어둠속의 댄서〉가 새롭다면 그것은 형식의 실험 때문이기보다는 끝없이 절망함으로서 다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추구

###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비주얼 밀교

글 / 그림 : 정수일

교도 여러분. 이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오래만에 등산을 했더니 무척 힘이드네.

아이고. 또 어려운 말이다.

부처의 권속을 크게 나누면 불 : 자성륜신 (自性輪身) 보살 : 정법륜신 (正法輪身) 명왕 : 교령륜신 (敎令輪身) 의 세가지로 구분되는데 "륜" 자는 깨달음의 바퀴로 중생의 번뇌를 부수 버린다는 상징이랍니다.

그중에서 우리 밀교는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며 삼밀관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명왕의 역할이 중요한것입니다.

명왕(明王)은 불, 법, 승을 비방하고 해치는 무리들로부터 이를 보호해주는 신입니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신(神)은 타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의 개념이 아니고 불법을 배우고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명왕이 권대요?

아이쿠... 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표시를 하는겁니다.

산천초목도 다 중생이거늘 산생명을 함부로 꺾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많이 쉬었으니 정상까지 올라갑시다.

어? 이런곳에 웬 석불상이 있지?

지루한데 잘됐다. 술방울놀이 하자.

해해.. 명왕이 불, 법, 승을 보호한다고? 술방울로 석불상을 맞춰도 아무일도 없잖아...

아이쿠~! 왜 술방울이 한곳에 이렇게 많아..!

하하하...!!! 석불상을 술방울로 맞추더니 명왕의 노여움을 샀군요.

그래서 삼보를 함부로 해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 총지동의보감

## 갑상선이란?

김옥희 | 김내과 의원 원장

과다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며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게 된다. 또한 자율신경이 흥분하여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 먹고나면 먹은 것이 바로 내려가 쉬 배가 고파지고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흔히 신경이 예민해지며 손발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속도가 감소되고 열발생이 줄어들어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며 얼굴과 손발이 붓고 잘 먹지 않는데도 붓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된다. 자율신경이 둔해져 맥박이 느려지며 위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기도 한다. 정신활동도 느려져 말이 느려지며 기억력이 감퇴된다.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에도 여러 가지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곳 이므로 갑상선에 생긴 질병에 의하여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보다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를 갑상선

과다한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몸이 더워지고 땀이 많이 나며 잘 먹는데도 살이 빠지게 된다. 또한 자율신경이 흥분하여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의 운동 속도가 빨라져 먹고나면 먹은 것이 바로 내려가 쉬 배가 고파지고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흔히 신경이 예민해지며 손발이 떨리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속도가 감소되고 열발생이 줄어들어 추위를 많이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며 얼굴과 손발이 붓고 잘 먹지 않는데도 붓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된다. 자율신경이 둔해져 맥박이 느려지며 위장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기기기도 한다. 정신활동도 느려져 말이 느려지며 기억력이 감퇴된다.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갑상선에도 여러 가지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 내는 곳 이므로 갑상선에 생긴 질병에 의하여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갑상선 호르몬을 정상보다 과다하게 만들어내는 경우를 갑상선

가능항진증이라하며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하는 경우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 한다.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에는 요오드가 필수적이다. 요오드는 증곡속의 하나로서 바닷물에 많이 녹아 있어 바다에서 나는 음식에 주로 들어 있다. 요오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마를 비롯 김, 미역들의 해초이며 그 외 조개 새우 등 해산물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요오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관계로 해산물을 많이 섭취하므로 요오드 부족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는 드물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분비는 머릿속에 있는 뇌하수체에 의하여 조절되며 갑상선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질병에 의해 갑상선 제거술을 받은 경우는 평생동안의 갑상선 호르몬의 투여가 필요하다.

김내과 의원 (053)792-5115

## 여 래 기 획

광고기획/카다록/사보편집/출판대행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형빌딩 401호  
전화 : 739-2180, 722-2850 팩스 : 730-9067

알음알음 알 수 있습니다.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 모자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밀행사로...

#### “참 진언행자” 지공정사님 · 지희심 전수님

취재 박현수 · 황의수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밀양은 수많은 무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또 많은 고승, 학자를 탄생시킨 유서깊은 곳이다. 특히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춘정 변계량은 밀양군 총동면 구령리에서 태어났고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점재필 김종직은 밀양부 서쪽 대동리에서 태어났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 사명당스님은 밀양 부안면에서 태어났고 또한 우리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시고 한국 밀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원정대성사도 밀양군 산외면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생각이 있다. 이처럼 밀양은 한국불교에서나 우리 종단으로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밀양은 유교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있고 또한 시(市)라고 하나 상주하는 인구는 5만 정도여서 밀행사 교도들도 대부분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포교나 교화 혹은 설법에서 여타 다른 지역의 사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도들간의 화합이나 법회 때의 가족적인 분위기 등은 다른 사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한반도의 중추 백두대간을 타고 내리던 산줄기의 끝자락에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7개의 산군 가운데 자리 잡고있는 밀양. 최초로 밀양에 대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밀양은 삼한시대 변한 24국 중 미리이동국이다. 그 후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한 추화군이 되었다가 고려시대에는 밀성군으로 개칭 다시 조선시대에는 고종 32년에 대구부 밀양군이 되었고 1989년 밀양읍이 밀양시로 승격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밀양은 수많은 무형,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또 많은 고승, 학자를 탄생시킨 유서깊은 곳이다. 특히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 춘정 변계량은 밀양군 총동면 구령리에서 태어났고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며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점재필 김종직은 밀양부 서쪽 대동리에서 태어났다. 특히 한국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승 사명당스님은 밀양 부안면에서 태어났고 또한 우리 불교총지종을 창종하시고 한국 밀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원정대성사도 밀양군 산외면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그 생각이 있다. 이처럼 밀양은 한국불교에서나 우리 종단으로나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기2년(1973) 밀양선교부가 개설되어 초대 주교로 현재 부산 법성사에 계시는 시각화(始觀花) 전수님의 축비소리에 맞추어 육지대명왕진언 옴니반메흠 그 신묘한 진언이 처음 밀양에 울려 퍼진 후 총기4년(1975) 밀양선교부는 밀행사로 개칭되었고 현재의 밀행사는 총기 11년(1982) 착공된 사원이다. 초대주교 시각화 전수님 이후 하정 정사님 그리고 대원화, 법상원, 밀공정, 지희심전수님을 거쳐 현재는 지공 정사님이 주교로서 밀행사를 이끌어 나가

고 있다. 정사님은 부산 정각사 교도로서 20년 이상을 수행하였다가 총기25년(1996) 정각사에서 교무로서 사원살림을 맡아보면서 종단에 몸을 담게되었고 총기 27년(1998) 승직에 뜻을 두고 밀행사에서 시무로서 수행을 하여 28년(1999) 시무를 마치고 총기 29년(2000) 승직으로 밀행사 주교로 초임되었다. 밀양은 옛부터 밀양 박씨의 본관으로 박씨들의 집성촌이 많으며 또한 앞에 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성리학의 대두이며 영남학파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김종직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유교의 뿌리가 아주 깊이 박혀있고 또한 시(市)라고 하나 인구 17만이 넘지 못하고 밀양시에 상주하는 인구는 5만 정도여서 밀행사 교도들도 대부분이 혈연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포교나 교화 혹은 설법에서 여타 다른 지역의 사원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도들간의 화합이나 법회 때의 가족적인 분위기 등은 다른 사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특히 신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일지성 보살님은 그 신심이 정말 돈독하여 다른 교도들의 모범이 되며 총무를 맡아 신도회의 살림을 꾸리고 나가는 실각지 보살님 또한 신도들간의 화합과 진언수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지공 정사님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모자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나를 밀행사로 인연을 맺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시며 회장보살님과 총무보살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초임 주교들이 흔히 겪는 시행착오도 많이 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는 정사님의 입에서는 육지대명왕진언 옴니반메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밀행사 : 경남 밀양시 내이동 701-11 ☎ (055)354-3387

#### 인터뷰



약력  
총기 25년 정각사 근무  
총기 27년 밀행사 시무  
총기 29년 밀행사 주교

▶ 승직자가 교도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사거리가 나왔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길이 막히는 것은 고사고 사고로 인명의 큰 피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사고를 막는 것이 신호등입니다. 승직자는 바로 그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야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무리 법력이 높은 고승이라고 남의 해탈을 대신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해탈이나 자유로움 이 모든 것은 스스로의 수행과 정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덕에서 저쪽 피안의 언덕 쪽으로 가는 길 앞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신호등, 악업과 죄안과 욕심과 거짓 앞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신호등, 중생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갈려는 중생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승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요.  
▶ 참으로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밀행사가 승직자로서는 초임이신데 앞으로 포교의 방안이나 사원운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전에 제가 교도로 있을 때 가끔은 스승님의 포교방법이나 사원운영 혹은 설법하시는 모습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볼텐데 하고 생각한 적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일선교회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그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꼬끼리를 만지는 장님보다 못한 시각으로 감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몰라도 너무 몰랐죠. 그 후 제가 승직으로 밀행사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방안을 찾고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불공을 하면서 내 자신을 쳐다보니 내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더

군요. 그래서 계획을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획이나 방안 등을 크게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미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오늘이 없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종종 망각하는 것 같더군요. 오늘을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 미래는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질문에 답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 그러나 계획이나 방안을 보다는 오늘 상황에 대하여 충실함에 더 역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곁에 머물고자 수행정진 하시는 우리 총지종 교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직 교화경험도 별로 없고 수행도 깊지 못한 제가 무슨...  
▶ 자성일 법회시간에 설법하는 것처럼 편하게 해주시죠.  
교화 혹은 중생제도를 위한 방편이라는 변명을 붙여 우리 절에 와서 백일불공을 하면 소원을 들어준다는니, 우리 절에는 신통한 불상이 있어 그 불상에 제를 올리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등 하면서 중생들을 현혹하는 현수막이나 교계신문에 광고가 나오는데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총지종 교도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그런 교도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세요. 불교는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처님께 아무리 불공하고 기도해도 부처님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 가정이나 직장 혹은 가족간의 불화 경제적인 궁핍,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그 해결책도 바로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수행과 정진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밀교에서는 이를 법신설법(法身說法)이라 하며 이 법신설법을 알아듣는 것을 증득(證得)한다고 합니다. 부디 우리 총지종 교도들은 많은 수행과 정진으로 더 많은 법신설법을 증득하여 꼭 성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 긴 시간 취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밀양 밀행사에 항상 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사가 흥만하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